

# 마음을 마음껏 버려라 놓아라 비워라!

## 한마음선원 학생회 8월 2일~ 4일 여름수련회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학생회(지도법사 해모 스님)는 8월 2일~ 4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버려라! 놓아라! 비워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중·고등학생 140명과 학부모 30여 명이 함께 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게임, TV시청 등을 마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가고자 하는 자녀들을 대견해 하며 공양 준비 등의 수련회 뒷바라지에 보이지않는 손길을 보태 훈훈함을 더했다.

입재식에서 부산지원장 해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이니 내 안의 부정적 사고를 비워내고 스스로가 지은 생각의 틀을 깨는 이번 수련회가 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열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날은 어색함을 자연스러운 스किन심으로 풀어내는 조별모임과 춤명상을 통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연습을 하는 '버려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이동 나를 몽땅 내려 놓는 '놓아라'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된 임원단들이 직접 구성, 연출한 연극 '내 마음을 밝혀가는 촛불제' 공연과 수련회를 통해 느낀 마음을 노래로 불러보며 나누는 '힐링 캠프' 등으로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날에는 미선을 통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생각, 순간순간의 감정을 버리고, 놓고, 비워보는 활동으로 수련회를 회향했다. 이번 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학생회는 8월 2일~ 4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련회를 함께 한 140명의 학생들은 신나게 버리고, 힘껏 놓고, 마음껏 비운 것을 마음의 에너지로 채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부산지원 어린이회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지원 도량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대구, 목포, 통영, 울산 등 각 지원별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가 각 지원 도량과 치악산, 설악산, 청량산 등지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성철 스님 봉훈관 강제철거·출입로 봉쇄

### 토지소유자와 분쟁 발생...이건 좁히지 못해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이었던 성철 스님의 유훈이 담긴 부산 해월정사 봉훈관의 일부가 지난 7월 17일 이른 아침, 법원 집행관과 동원된 굴착기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성철 스님의 망상좌로 해월정사의 회주로 있는 천체 스님은 "오전 9시경 철거를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행관이 용역직원 80여명과 굴착기를 동원해 갑자기 들이닥쳐 무차별한 강

제철거가 진행됐다. 해월정사의 봉훈관 출입계단, 석등, 식당 건물, 화장 등을 철거하고 봉훈관 출입로를 펜스로 봉쇄해 사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 등 10여 명이 혼신을 다해 막아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2004년 이모 씨 등 2명의 사유지를 포함한 땅에 봉훈관과 식당 등을 신축하

면서 토지 매수를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해 오던 중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런 과도한 사용료 인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며 "수차례 보상규모를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분쟁이 되는 땅은 적광전과 봉훈관 사이 561평방미터(170평) 규모의 봉훈관 진입로로 현재 굴착기로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채 펜스로 양쪽이 모두 봉쇄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강제철거로 훼손된 봉훈관 전경

현재 봉훈관 출입을 위해 식당육상에서 봉훈관 사이 임시로 다리를 놓아 위험한 왕래를 하는 중이다.

해월정사는 "사찰의 사정으로 잔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다. 한편으로는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든 지혜까지도 잊보인다. 마당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부대중이 편안할 수가 없으며, 관리하기가 힘들다. 또한 너무 적으면 행사 하나 제대로 치를 수 없고 시각적으로 답답해져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야말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이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스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일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절 마당이 너무 넓어서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씀이었다. 직접 가서 보니 정말 마당이 황량할 정도로 넓었다. 법당 앞마당 좌우에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건물을 지나치게 뒤로 앉힌 결과였다.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절을 경영하시던 스님들의 안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절 마당 하나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들이야말로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귀중한 불교 유산의 관리에 위협을 초래한 강제집행과 무차별한 토지인도에 대해 종교 탄압으로 보고 순교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대처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함께 즐기며 힐링하는 불교 만들자”

### 부산진구불교교협 회장 무원 스님·신도회장 이현승 국회의원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가 8월 2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에, 이현승 국회의원이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 무원 스님, 고문 혜종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와 사무총장 범산 스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스님과 이현승 신도회장, 부산광역시 김종해 부시장, 김석조 시의장, 서병수 국회의원, 나성진 국회의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한 내빈과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무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산진구 불교의 새로운 비전과 화합을 이끌어 내고,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지역불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 이현승 신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항상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여 부산진구불교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장 무원 스님은 천대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원장,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고, 현재 천대종 종의회 부의장,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회장,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이번 부산진구불교연합회의 출범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추진중인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구역별 조직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구역별 연합회 출범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부산진구불교연합회의 재창립과 무원 스님의 회장 취임으로 구군 단위 불교연합회를 재정비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진구불교연합신도회가 8월 2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절마당, 건물과 조화 이뤄야

모든 건축공간은 건물로 둘러싸인 중심 부나 건물의 주변부에 빈 공간을 둔다. 그 빈 공간이 바로 마당인데, 마당은 건물과의 상관성에 따라서 성격이나 형태, 규모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사찰은 마당을 통해서 사찰공간의 독특한 특성을 찾기도 한다.

불교가 전래된 초기단계에 지어진 사찰의 마당은 건물이나 회랑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폐쇄성이 아주 강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찰이 산지로 옮겨가면서 자연지형에 순응해서 건물을 앉히다보니 마당의 폐쇄성이 약해지게 되었다. 건물을 떨어트려 짓고 회랑이 없어져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찰의 마당가운데에서도 법당 전면의

마당은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탑이나 석등과 같이 사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석조물들이 자리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도 쓰인다.

그야말로 도량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이 마당의 규모를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적정규모로 만들고 폐쇄성의 정도도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만들어왔다.

마당의 규모나 폐쇄성의 정도가 적절하다는 말은 건물과의 상관성이 아주 친화적이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건물의 길이와 높이가 마당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를 만들었고, 건물의 띄는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든 지혜까지도 잊보인다. 마당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부대중이 편안할 수가 없으며, 관리하기가 힘들다. 또한 너무 적으면 행사 하나 제대로 치를 수 없고 시각적으로 답답해져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야말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이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스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일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절 마당이 너무 넓어서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씀이었다. 직접 가서 보니 정말 마당이 황량할 정도로 넓었다. 법당 앞마당 좌우에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건물을 지나치게 뒤로 앉힌 결과였다.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절을 경영하시던 스님들의 안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절 마당 하나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들이야말로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우리나라 사찰은 마당을 통해서 사찰공간의 독특한 특성을 찾기도 한다. 그래서 사찰마당은 적정규모와 폐쇄도가 필요하다. 경기도 사사

## “봉녕사의 역사와 문화” 학술심포지엄

2013. 9. 2  
2013. 9. 11~9. 13

-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 후원 : 제주묘엄박물관
- ◆ 일시 : 불기 2557년(2013) 9월 2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 ◆ 장소 : 봉녕사 소요상정(도서관) 1층
- ◆ 주제 발표 I (10:20~11:30)
  - ..... 사회 : 홍대현(숙명여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제 1주제 발표(10:20~10:45) : 황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 : 「전 근대기 봉녕사 역사의 변천과정과 관련 고승」
  - 제 1주제 토론(10:45~10:55) : 한동민(수원시사편찬위)
  - 제 2주제 발표(10:55~11:20) : 김상영(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 : 「봉녕사의 근 현대 역사와 사격」
  - 제 2주제 토론(11:20~11:30) : 김광성(동국대 연구교수)
- ◆ 주제 발표 II (12:30~14:20)
  - 제 3주제 발표(12:30~12:55) : 정성래(동국대 박물관 연구원)
  - : 「봉녕사의 성보문화유산과 그 가치」
  - 제 3주제 토론(12:55~13:05) : 태경스님(동국대 강사/조계종 교수이사장)
  - 제 4주제 발표(13:05~13:30) : 최태선(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
  - : 「봉녕사 가람배치의 특성과 정비방안」
  - 제 4주제 토론(13:30~13:40) : 적연 스님(봉녕사 금강올림픽대학원장)
- ◆ 종합토론 및 총평(13:50~14:50)
  - 참석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총평 :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13:50~15:00)

※ 심포지엄 후(오후 3:30) 도서관 2층에서 졸업생 동문모임 「선우회」가 개최됩니다.

봉녕사는 제주묘엄 큰스님께서 강조하신 철저한 지계정신을 바탕으로 불법의 기본사상을 정립하여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비구니 승가교육의 요람입니다.

봉녕사(수원) 031.256.4127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 [2013년 계율특강] 계율과 수행의 관계

봉녕사 금강올림픽대학원에서는 수행에 있어서 계율의 역할과 지계정신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덕 높은인 율사스님들을 모시고 「계율과 수행의 관계」라는 주제로 묘엄불교문화재단 후원으로 계율특강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뜻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제주묘엄박물관
- ◆ 주관 : 금강올림픽대학원
- ◆ 후원 : 묘엄불교문화재단

- ◆ 초청율사 : 해인사 율주 종진스님, 대만 남보타불학원 부원장 본인스님, 대만 의덕사 니화상 소안스님
- ◆ 모집대상 및 인원 : 비구니 스님 30명 (선착순)
- ◆ 강의일정 :
  - 9월 11일 본인스님 오전 8:00~10:00
  - 본인스님 오후 14:00~16:00
  - 9월 12일 본인스님 오전 8:00~10:00
  - 종진스님 오후 14:00~16:00
  - 9월 13일 소안스님 오전 8:00~10:00

- ◆ 신청문의처 : 전화 031-256-4127, 팩스 : 031-253-3877
-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팩스 또는 메일(bong4127@hanmail.net)로 보내시거나 전화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방사 및 공양 관계로 인하여 선착순 마감합니다.  
※ 2박 3일 특강기간 동안 오후불식이며, 기사 장삼, 세면도구 지참바랍니다.